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중국정부, 2011년 경제성장을 목표 8% 설정

□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(이하 발개위)는 내년도 중국정부의 경제성장을 및 소비자물가상승률(CPI) 목표치가 각각 8%와 4%가 될 것으로 전망함.

- 발개위의 장핑(張平) 주임은 최근 개최된 전국 개혁발전공작회의에서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공개될 2011년 중국경제 기본 운용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정부의 경제성장을 목표치는 8%, 소비자물가상승률 억제 목표치는 4%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.
- 또한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 효과가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내년도 신규취업수가 약 900만 명을 기록하고 실업률(도시주민 기준)도 4.6%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.

□ 중국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을 목표치인 8%는 대다수 국책연구기관들의 예측치인 9~10%보다 다소 낮은 수치인 반면,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억제 목표치인 3%보다 상향됨.

- 정부 연구기관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, 사회과학원 등 대다수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을 9~10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, 유엔도 '2011년 세계경제 전망' 보고서에서 8.9%로 예측한 바 있음.
- 따라서 이번 발개위가 발표한 경제성장을 8%는 중국정부가 목표한 최소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.
- 최근 중국 경제성장은 2010년 1~3분기 기준 11.9 %(전년동기대비)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, 내년 1~3분기까지 둔화세를 나타내다가 4분기 이후에나 호전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음.
-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 목표치인 3%를 상회하는 4%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내년에도 미국의 금융완화정책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및 근로자 임금상승 등으로 제조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.

(신화사, 중국 CCTV, 12/15)